



도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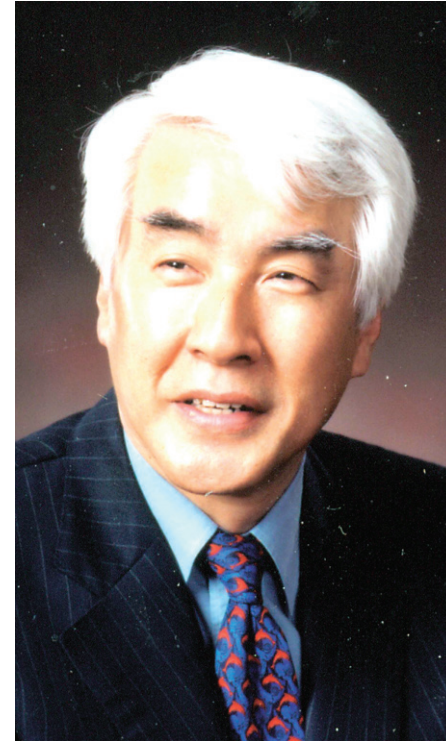
정산 스님



종호 스님



성형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이기후 중앙신도회장

한국불교 변화의 주역들 2013년을 말하다

“스스로 희망 만들때 거듭날 수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가고 2013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에도 여전히 한국불교 변화의 과제는 많다.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교문화에 대한 전통문화로서의 재평가와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한 활동도 보다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불교계 인사들에게 2013년의 혁신 전망과 과제를 들었다.

정리·노덕희 기자

“중도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종단 개혁”

도법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현재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한 것을 깊이 인식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2012년 자성과쇄신결사가 제안했고 조계 스님을 위시해 원로, 본사 주지 등 각계에서 한국불교가 결사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중공사를 통해 조계종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과 사찰의 재정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의 틀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승불교답게 현대 사회

상황에 불교정신을 담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일 정진과 무차대회 등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흐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화쟁불사에는 보다 종단 구성원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특히 쌍용차 문제, 제주 강정마을 문제 등에 책임있는 종단 소임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종단 구성원 개개인의 사상과 문화, 풍토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도 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 의식개혁결사가 활발히 전개돼야 합니다.

희망은 어디에 따르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현장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하며 그 주체도 자기 자신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기 현장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로 확고한 위치 확보”

정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10년간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한해는 전통문화로서 불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2013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콘텐츠로서, 템플스테이가 지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전 세계인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그 어느 전통문화와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천년을 넘어 이어진 철학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와 외국인 참가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3년간 템플스테이 브랜드의 내실화와 콘텐츠 발굴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찰음식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사와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모란 곳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회통합적 프로그램개발에 힘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템플스테이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와 교재 마련, 연구조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학습적이고 신뢰성있는 전통문화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동환경 개선 공생의 삶”

종호 스님 조계종 노동위원장

지난해에는 불교의 사회적 지평이 넓어진 한해였습니다. 노동문제에 까지 불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처음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노동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연거푸 관점에서 노동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은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 하여 노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삶의 필수조건으로 우리는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본의 극단적인 독주로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양극화가 최대 화두. 그 과정에서 자본에서 극단적인 독주로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비정규직만 48%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노동자 5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의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이익추구가 빛은 잠극입니다. 공생의 삶을 사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공정한 노동환경, 고용자의 사회적 책무에도 주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새해 과제일 것입니다.

“어린이 포교 저변확대의 해”

성형 스님 어린이지도자연학회 회장

지난 한 해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성취포상제가 실시되며 이에 맞춰 불교 스카우트, 아이수학교 등이 도입됐습니다. 조계종과 교육계의 업무 제휴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하며 체험과 동시에 스펙을 쌓는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불교계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공부방이나 아동센터의 분야에만 국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의 기반으로 이제 보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봉사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며 자기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새해에는 불교계는 성취포상제도와 연계해 지역사회들과 협조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제도를 잘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어린이포교 법인인 예그리나를 설립했습니다. 청소년 단체에나 파라미타와 함께 청소년교화연합회가 활동했지만 어린이 분야에는 동력이 유일했습니다. 종교법인으로의 제약을 넘어 전문화를 알리고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어린이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새터민 자녀 등과 같은 소외계층을 함께 보듬어 나가는 일도 힘써야겠습니다.

“불교·지역 발전에 앞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지난 2012년은 금강대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0년이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린 시기였지만 앞으로 걸어야 할 10년은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강대는 소수정예로 수능 1~2등급 이상의 엄격한 자격조건을 걸고 장학제도 등으로 사회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HK사업을 수주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질적 도약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대학으로서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금강대는 첫째 한국불교의 발전에 일익

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금강대 위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2013년 새해에는 더욱 앞으로 내실을 기하고, 외적으로도 한 단계 대학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학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면 이 것이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교계 인재발굴 육성에 최선

이기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2013년은 한국 신행의 큰 변화가 이 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중앙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불교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통화와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불교계에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도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신도회는 불교계 인재발굴, 육성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 예정입니다. 신도역량을 높이고 신도회의 기본조직인 교구신도회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신행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도회 조직력을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 사회공헌선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지만 믿음은 큰 불자들이 계시기에 불교와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먼저 변화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New Year Greeting (謹賀新年) with illustration of a mountain landscape and a person. Text: 부처님 제자들이 희망입니다. 강한 인문학과 따뜻한 과학, 동국대학교 융복합교육으로 키워낸 부처님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dongguk UNIVERSITY

New Year Greeting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and list of regional branches (영산불교 현지사) with contact information.